

첨단시대, 과학출판은 아직도 극빈상태

순수과학 출판 더욱 빈약... 필자 부족으로 번역서 비중 높아

과학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다. 아니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그러나 그 기초가 될 과학기술도서 출판은 여전히 빈약하다.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96년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과학기술도서는 초판만 3760종. 전체 발행종수 32,256종의 11.7%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순수과학도서는 387종으로 전체 발행종수의 겨우 1.2%에 불과하다. 이같은 수치는 95년의 521종보다 134종이 줄어든 것이고, 10년 전인 86년의 309종보다 겨우 78종이 늘어난 것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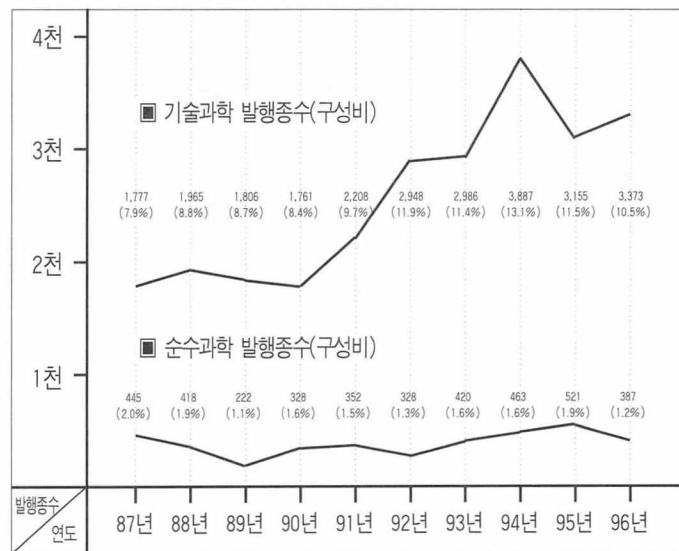
기술공학도서는 그나마 사정이 낫다. 기술공학은 95년의 3155종보다 218종이 늘어난 3373종에 달해 전체 발행종수의 10.5%에 이른다. 10년 전인 86년의 1777종보다는 1596종이 늘어난 것으로, 순수과학의 둔감한 성장에 비하면 증가치가 높다. 기술공학도서의 이같은 증가는 특히 최근들어 독자들의 관심이 높아진 컴퓨터분야 도서의 증가에 힘입었다. 실제로 기술공학 가운데 컴퓨터가 포함된 전기공학분야가 1584종으로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순수과학 도서의 '극빈' 현상

통계상으로 확인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빈약한 사정은 이웃 일본과의 대비를 통해 두드러진다. 이정일(일진사 대표)씨가 지난 95년 내놓은 논문 <과학기술도서 출판실태에 관한 한·일간의 비교연구>(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석사학위논문)에 따르면, 1991년부터 94년까지 출판된 과학기술도서 총발행량은 우리나라가 13,591종인데 비해 일본은 29,913종으로 우리나라의 2.2배가 출간된 것으로 집계됐다. 총발행종수 대비 과학기술분야 발행종수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13.1%에 그친 반면 일본은 15.8%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순수과학과 기술과학의 비율은 우리나라가 각각 1.5%, 11.6%라는 기형적 출판형태를 보인 반면 일본은 각각 7.7%, 8.1%로 순수과학의 비율이 기술과학서적에 별로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정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과학기술의 규모나 투자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최근 10년간 과학기술도서 발행추이



1989년 한국산업은행이 내놓은 <첨단기술산업의 장기발전전략>은 비록 해묵은 자료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단계를 어렵잡아 보는데 크게 부족함이 없다.

한 나라의 기술규모를 측정하는 한 기준이 되는 특허·실용신안 등록건수를 보자.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144.8, 서독은 71.4, 프랑스 50.2인 반면 우리나라는 겨우 8.1을 기록한다. 기술개발력의 근거가 되는 연구비와 연구자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 연구비의 경우 미국을 100으로 했을 때 일본은 44.4, 서독이 21.9, 프랑스가 14.5인 반면 우리나라는 2.1 수준. 연구자 수는 일본이 51.3, 서독이 18.2, 프랑스가 13.3인 반면 우리나라는 6.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미국의 기술규모가 100일 때 우리나라는 7.3에 머무르며, 미국의 기술개발력이 100일 때 우리나라는 4.1에 그친다는 평가다.

'양적인 열세'와 '순수과학의 극빈현상'으로 집약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도서의 상황을 한 출판인은 "빈약한 출판물, 빈약한 독자, 빈약한 저자가 맞물리며 빚어내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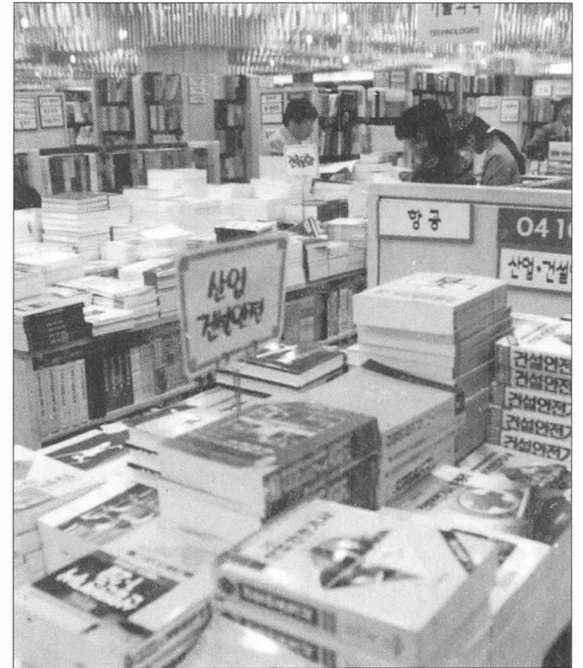
1년에 초판 2000부를 소화하기 힘들 만큼 한정된 과학출판물 시장은 그 악순환의 시발점이다. 시장이 한정돼 있으니 과감한 기획을 하기가 힘들고, 기획을 했다 하더라도 마땅한 저자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과학출판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이나 혜택이 전

무한 것도 양서출판을 가로막는다. 힘들어 좋은 책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필자나 출판사에 돌아가는 이익은 극히 작아서 집필이나 기획 의욕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은 극히 일부 분야에 편중돼 있는 순수과학도서 출판의 양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한국십진분류법'에 따르면, 순수과학의 범주에 드는 분야는 순수과학 일반(총류 포함)·수학·물리학·화학·천문학·지학·광물학·생물과학·식물학·동물학이다. 지난해 집계에 따르면 순수과학 일반(74종)과 수학(94종)이 대종을 이루고 천문학(9종)이나 광물학(2종) 등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양적으로도 충분하지 않은 과학지식이나 정보 또한 편중되어 있어서 독자들의 다양한 관심을 채워주기에는 미흡하며, 자칫 편중된 이해나 관심을 부추기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번역서 비중 높아

최근 들어 번역도서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우리나라 과학도서 출판의 한 현상이다. 출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출간된 순수과학도서 가운데 번역도서가 106종으로 전체(387종)의 2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과학사의 손영일 전무는 1973년 '과학을 당신의 포키트에'란 구호 아래 '현대과학신서'를 기획했으나 필진을 구하기가 힘들어 번역본으로 대체했던



사정을 설명하고 "아직도 사정이 그다지 나아진 바 없다"고 밝힌다.

실사 국내 필진을 구한다 하더라도 집필부터 편집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급격한 과학기술 발전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것도 번역출판에 의존하게 되는 이유다. 번역출판의 경우, 다른 분야보다는 선인세가 조금 낮아 120만원 정도면 계약이 가능한데, 외국출판사들은 초판 2000부가 제대로 소화되지 않는 우리 시장의 규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과과학사는 얼마 전부터 초판 발행량을 1500부로 낮췄는데 외국출판사가 이를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해서 계약은 2000부로 하고 실제로는 1500부를 찍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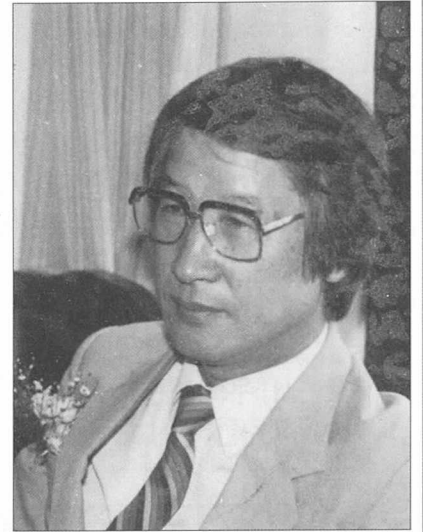
이같은 사정은 발행종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술과학 출판도 마찬가지다. 기술과학 일반·의학·농업·공업일반·토목공학·건축공학·기계공학·전기공학·화학공학·제조업·가사·가정학 등을 포괄하는 기술과학도서 가운데는 수험서가 다수 포함돼 있다. 비교적 안정적인 영입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순수과학도서보다는 사정이 나은 듯하다.

그러나 약 200개에 달하는 기술과학도서 출판사의 난립은 시장을 비좁게 한다. 컴퓨터가 포함된 전기공학분야는 발행종수에도 기술공학 전체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지만, 이른바 '한탕'을 노린 출판사들의 부침이 어느 분야보다 심한 곳이기도 하다. 초판 3000부만 나가면 '잘 나간' 책이 되는 사

과학출판에 행정은 없는가

정해상

겸지사 대표



정해상 사장.

학발전을 쥔 수 있는 척도의 하나가 바로 과학출판의 질과 양"이라고 하면서 "과학의 고유한 기술법을 일정한 방법으로 변형하여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적 과학출판의 위력 없는 과학의 대중화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고 과학과 출판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보 제12호에서 인용)

이토록 중요한 소임을 하는 과학출판이 정작 과학행정당국으로부터는 외면당하고 있는 느낌이 든다. 흔히 많은 국내 저자에게 외국 출판사에 많은 로열티까지 지불해야 하는 과학기술도서 출판의 어려운 실정을 익히 알면서도 과학발전에 기여하는 도서의 역할은 전혀 평가하려 하지 않는다.

지난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려다 이런저런 사정으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는 전문 19조 부칙으로 된 '과학기술특별법(안)'만 해도 그러하다. 제안 이유에 "과학기술자의 사기를 양양하는 등 종합적인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 하면서도 동법 어느 조항을 훑어 보아도 과학기술도서를 지원한다는 문구는 단 한구절도 없다. 특별법에 과학기술자의 사기양양까지 배려했으면서 과학기술도서에 관해서는 시종 외면한 동법에 큰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한편으로는 우리들 자신의 탓이라 자괴하면서도 이런 때 과학기술출판협회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아쉽기만 하다. ❖

4월은 '과학의 달'이다. 올해의 4월 21일은 '과학의 날'이 제정된 지 30번째를 맞는 날이니 예년보다 더 풍성한 행사들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 학회나 과학단체들마다 앞다투어 세미나며 학술대회 같은 것을 개최할 것이고, 4월 21일 '과학의 날'에는 유공 과학기술인들에 대한 정부 포상과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과학행사도 열릴 것으로 믿는다.

평소 서운하리만큼 소원하던 신문과 TV 등 매체들도 과학기사와 과학프로를 통해 과학계몽 캠페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오늘날을 가리켜 과학기술 시대라고들 한다. 과학이 국력의 척도가 되고, 이제 무력 대신 기술력이 다른 나라의 생사까지도 여탈하는 새로운 패권으로 군림하게 되었으니 과학기술을 등한히 하고는 국제사회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되었다.

지난날의 대영제국을 비롯하여, 독일·미국 그리고 현재의 일본이 그랬듯이, 언제나 후발 신흥국은 새로운 기술과 더불어 등장했고, 앞으로 또 기술은 세계를 어떻게 디자인해나갈 것인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런만큼 기술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져 과학기술은 결코 용이하게 구할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되었고, 가장 큰 노력과 가장 많은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얻을 수 없는 값비싼 것이 되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이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그 풍토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것은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요, 학자나 기술자들의 힘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정부와 학계·산업계·재계는 물론 온 국민들의 의식과 생활방식도 보다 과학적인 정신바탕 위에 편만해야 한다.

출판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한번 보고 마는 신문이나 TV보다 책은 사고의 합리화, 생활의 과학화, 기술의 대중화를 국민 속에 깊이 지속적으로 전파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매체이기 때문이다. 출판하는 사람으로 내일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지난 81년 4월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한국과학저술인협회가 출판문화회관에서 '과학과 출판'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연 적이 있었다. 당시 홍문화 회장은 "한 나라의 과

양적인 열세와 순수과학의 극빈현상으로 집약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 도서의 상황을 한 출판인은 "빈약한 출판물, 빈약한 독자, 빈약한 저자가 맞물리며 빚어내는 악순환"이라고 표현한다.

정도 비슷하다.

한정된 독자, 출판사의 난립, 필자 부족 외에도 과학기술 출판인들이 말하는 어려움은 많다. 그리고 그것은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 출판의 과제이기도 하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용어 정립의 문제. 과학기술도서 제일의 생명은 정확성임에도 불구하고 번역용어가 아직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아 책마다 표현이나 표기가 다르다. 제대로 된 전문 용어 사전조차 찾기 힘든 사정은 이런 상황을 더욱 부채질한다.

번역 용어 정립 우선 과제

전문인력의 부족도 이 분야 출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다. 한 증권출판인은 몇해전 일류대학의 과학전공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구인공고를 내서 몇 명을 채용했지만 이들이 3개월을 버티지 못하고 나가버렸다고 고백한다. 전문인력들의 출판에 대한 무관심을 무조건 탓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장기적이고 전문적이며 참신한 기획의 부재는 전문인력을 찾기 힘든 데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전문인력의 부재는 편집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출판사들이 사장 1인체제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표지 디자인뿐 아니라 수식이나 그림·도표가 많이 들어가는 본문 편집도 다른 분야에 비해 많이 뒤떨어진다는 평이다. 세련되지 못하고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은 과학기술 책이라면 무조건 딱딱하고 재미없다고 여기는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강화시키는 데 큰 몫을 한다.

유통구조의 난맥상과 낡은 영업방식도 문제다. 서점 직거래, 도매상, 학원, 학교 등 책의 성질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여러 채널을 출판사 스스로 다 커버해야 하는 사정은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어느 정도 연륜이 쌓이고 중수가 많아져서 서점에 자사 코너라도 갖게 된 출판사는 행복하다. 교재나 수험서가 아니면 지방에서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는 데가 많고, 서울에서도 대형서점 외에는 과학기술코너를 찾기 힘들 뿐 아니라 눈에 잘 안 띄는 후미진 곳에 서가가 있는 것은 독자들의 과학기술도서에 대한 무관심의 반영이자 원인이기도 하다. 매출액이 워낙 적다 보니 광고를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신문·잡지 등의 책관련 지면도 과학기술도서에 대해서는 인색하다는 것이 관련 출판사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이정일(일진사) 사장은 "과학기술출판의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문인을 육성하고 저술의욕을 고양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과학기술 용어의 정확한 표기를 위한 기초 작업을 시행할 전문가가 설립돼야 하며, 유통상의 특징을 고려한 전문 유통센터의 설립도 시급하다"고 정리한다.

과학기술출판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노력의 가장 기초적인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40년간 이 분야 출판에 매달렸지만 한 번도 베스트셀러를 내본 적이 없고, 집도 사무실도 창고도 다 전세"라는 한 출판인의 고백에서 엿볼 수 있듯, 영세성을 면하기 힘든 개별 출판사들의 노력에만 모든 것을 맡기기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의 크기가 지나치게 크고 복잡적이다. 장기적이며 참신한 기획으로 독자들에게 성큼 다가서는 책을 생산하는 일에 출판사들이 보다 주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정부와 사회 전체의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 물론, 이 분야 출판인들의 문제의식의 공유와 공동대응 노력 또한 빠져서는 안될 일이다. — 박남정 기자